

HEADLINE NEWS

도시서비스 만족도 다면평가체제 도입 (미국 : 오스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는 1996년이래 市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대상 서비스는 공공안전관리(Public Safety), 교육과 복지행정(Youth, Family and Neighborhood Vitality), 환경과 도시기반시설(Sustainable Community), 재정과 시민경제(Affordability) 분야이다. 도시서비스 평가체제의 특징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공관리기법을 매우 체계적으로 통합시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평가체제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발의의 행정시스템이다. 시민들이 정부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거버넌스(Governance)적 도시관리접근방법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둘째, 이 평가체제는 시민만족도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셋째, 각종 성과측정 지표를 매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넷째, 평가 결과를 다른 도시정부와 비교하는 이른바 벤치마킹적인 측면이 있다.

(www.ci.austin.tx.us/budget/scorecard00-01.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도시빈민가 재개발사업 추진 (뉴욕)
- ② 불법부착 포스터·낙서 단속기관 설치 검토 (웰링턴)
- ③ 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밭 전면 조성 계획 (東京都 杉並區)

도시환경

- ④ 물 부족에 대비 '빗물이용촉진사업' 추진 (북경)

도시교통

- ⑤ 요일별·시간별 택시요금 상한제 도입 (바르샤바)
- ⑥ 민자유치로 대교(大橋) 개량사업 시행 (뉴욕)
- ⑦ 벤디버스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 추진 (런던)

행·재정

- ⑧ 서울시 및 일본 월드컵경기 개최도시간 토론회 개최 (요코하마)
- ⑨ '美테러사건' 이후 都廳舍 특별경계 실시 (동경)
- ⑩ 시민참여 활성화 위해 「시민참가 추진조례」 제정 추진 (교토)
- ⑪ 온라인건축허가시스템 가동 (싱가포르)
- ⑫ 재정기반 강화 위해 내년부터 민간에 임해부 토지 매각 (동경)

사회복지

- ⑬ 유치원·보육원의 통합 및 일원화 추진 (일본: 이누야마市)

① 민간파트너십을 통한 도시빈민가 재개발사업 추진 (뉴욕)

미국 뉴욕시의 할렘가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빈민가이다. 특히, 시 동부지역의 할렘가는 낮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뉴욕州的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민간기업, 건축업자, 투자회사 등에 대한 강력한 유인정책을 펼침으로써 이들 할렘가 재개발 사업을 성사시켰다. 시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조세감면과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이다.

최근 이 사업이 첫 번째 결실을 맺어 동부 할렘가 지역의 117·118번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작업과 고급타운하우스 건축계획이 발표되었다.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급타운하우스가 완공되면, 이 지역의 입지조건을 고려할 때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고급주택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nyc.gov/html/hpd/home.html)

② 불법부착 포스터·낙서 단속기관 설치 검토 (웰링턴)

뉴질랜드 웰링턴시는 도심부 공공재산의 재도색(Repainting)과 도시 단장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불법부착 포스터와 낙서를 단속하고 있다. 그 동안 낙서와 불법부착 포스터가 기존 공공시설의 도색(Painting)을 훼손시키고, 시의 안내판을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이 캠페인은 현재 대행업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시는 우선 안내판과 보호기둥(Bollard : 도로·잔디 등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박아놓은 기둥)의 재도색을 시작함으로써 도심부의 미관을 바꾸어 놓을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포스터를 합법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장소도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의회는 포스터 불법부착을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 즉 시정부나 대행업체가 아닌 제3의 기구 설립과 관련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www.wcc.govt.nz/news/press/2001/nr000607.htm)

③ 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밭 전면 조성 계획 (東京都 杉並區)

일본 東京都 스기나미(杉並)구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밭을 전면 조성할 계획이다. (본지 제 12호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추진 (시애틀)」 참조) 당국은 잔디밭의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자원 봉사를 유도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잔디가 뿌리내릴 때까지 체육 수업은 당분간 인근 중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잔디밭의 유지관리에 달려 있다고 보고, 물 주기, 잔디 깎기, 비료 주기, 손상된 잔디의 보식(補植), 농약 살포 등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 9. 18)

④ 물 부족에 대비 ‘빗물이용촉진사업’ 추진 (북경)

중국 북경(北京)시는 향후 물부족 사태에 대비, 빗물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빗물이용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市는 중국과 독일의 과학기술협력 프로젝트인 이 사업을 위해 「도시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빗물제어와 지하수의 재이용」에 관한 보고회를 지난 9월 20일 개최했다.

市는 현재 昌平, 石景山 일대를 대상으로 1981년부터 1999년까지의 월간 및 1일 강수량·증발량·기온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빗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경市에서는 정수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물의 양이 연평균 7억 1,300만 m^3 에 달하고 있어 많은 수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人民網日本語版, 9. 24)

5 요일별·시간별 택시요금 상한제 도입 (바르샤바)

폴란드 바르샤바市는 지난 7월 택시요금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새로이 도입된 택시요금체계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6즐로티(폴란드 화폐단위)이고,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1킬로미터당 요금은 최고 3즐로티이다. 주중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및 휴일의 1킬로미터당 요금은 최고 4.5즐로티이다. 1시간 기다리는 요금은 요일 및 시간에 관계없이 40즐로티이다. 또한 시외로의 편도 요금은 낮에는 1킬로미터당 6즐로티이고, 밤에는 9즐로티이다.

(warszawa.um.gov.pl/i18n/english/voice/september2001/3_html)

6 민자유치로 대교(大橋) 개량사업 시행 (뉴욕)

미국 뉴욕市 맨해튼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설된 지 100년 이상된 대교(大橋)들이 많다. 이들 대교들은 그 동안 노후된 시설과 점점 늘어나는 다른 교통기반시설과의 부조화로 인해 市의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市는 민자 유치를 통해 이들 대교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市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 혜택과 완공 후 통행료 징수에 있어서의 혜택 부여, 그리고 대규모 투자자의 이름을 따서 대교의 이름을 명명하고 이 대교를 20년 이상 임대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

(www.nyc.gov/html/dot/html/whatsnew/reconstruction.html)

7 벤디버스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 추진 (런던)

영국 런던에서는 교통정체지역을 보다 쉽게 관통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현재 검토중이다. 런던 시장이 제안한 TfL(Transport for London) 계획은 ‘벤디버스(Bendy-bus)’와 트램(사진 참조), 그리고 트롤리 버스의 3가지 수단 중 한 가지를 사용토록 하는 「Cross River Transit」이다. 이 계획의 목적은 북쪽의 Camden, Euston, King's Cross 지역과 남쪽의 Holborn, Aldwych, Waterloo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한 노선은 Brixton 방향으로, 다른 노선은 Peckham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런던 서부에 적용될 이와 유사한 또 다른 계획은 서쪽의 Uxbridge, Sheperd's Bush 지역과 동쪽의 Ealing, Acton town centres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승차권 자동 발매기, 버스도착시각을 알려주는 신기술형 버스정류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벤디버스

TfL 계획이 추진된다면 환경친화적인 교통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통근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市는 아울러 자가운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계획은 내년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METRO, 10. 4)



트램

8] 서울시 및 일본 월드컵경기 개최도시간 토론회 개최 (요코하마)

‘월드컵 관광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서울시 관계자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개최도시인 일본의 10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7일 일본 요코하마(横浜) 산업무역센터 빌딩에서 개최되었다. 「2002 월드컵 개최 지자체 의견교환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개최도시간에 월드컵 준비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함과 동시에 국내외 방문객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날 일본측에서는 10개 도시 관계자 이외에도, 시민단체 · 요식업 · 숙박업 · 교통관련단체 · 자원봉사단 등의 관계자 약 100명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市 월드컵추진단장과 호텔업 · 요식업 · 자원봉사자 등 민간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한편, 2002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요코하마市에서는 국내외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어서 오십시오! 요코하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민으로부터 모집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10. 3)

9] ‘美테러사건’ 이후 都廳舍 특별경계 실시 (동경)

미국에서의 동시다발테러사건을 계기로 일본 東京都 총무국은 都廳舍 방문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신주쿠 都廳舍에 대한 특별경계에 들어갔다. 都는 廳舍 경비원을 증원, 모든 출입문에서 방문객을 체크하도록 했으며, 제1청사와 제2청사의 1층 출입구의 이용을 일부 제한했고, 자동문도 폐쇄했다. 다만,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문 현관과 제1청사 42층의 전망대는 종전대로 계속 개방하고 있다.

(www.toseishimpo.co.jp/news/bn01/bn010921.html)

⑧ 시민참여 활성화 위해 「시민참가 추진조례」 제정 추진 (교토)

일본 교토市는 市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참가 추진계획(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계획안은 시민과 행정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통한 시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의 형성과정·시행·사후평가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회의실의 설치, 주민투표 제도의 도입,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행정평가시스템 도입, 마을 만들기 협의회 등 NPO 활동에 대한 지원,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작성 등 새로운 시민참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市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확정 후 내년에 「시민참가 추진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www.city.kyoto.jp/sogo/partner/keikaku.html)

⑧ 온라인건축허가시스템 가동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01년까지 주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EDA(Electronic Development Application)’라고 명명한 전자건축 허가시스템을 최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문서화일과 CAD도면을 온라인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다른 레이어(Layer)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접수시킬 수 있다. 건축허가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또한 주민들은 접수 및 건축허가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건축허가 처리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개발업자, 건축가 및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공지비율 및 허가처리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담당행정부서의 업무도 효율화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www.mnd.gov.sg)

재정기반 강화 위해 내년부터 민간에 임해부 토지 매각 (동경)

일본 東京都는 임해부도심의 토지처분과 관련, 기존의 방침을 바꾸어 내년 초부터 임해부의 토지를 민간에 매각키로 했다. 都는 매각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의 탄력적 운용과 도시계획절차의 간소화 및 시간 단축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都는 금년 중에 임해부 재정기반강화계획을 수립해 장기수지예산을 밝힐 예정이다. 都는 또한 민간으로의 토지 매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8년까지는 사업의 동결·수정에 의해 1,000억엔 이상의 지출 삭감을 도모할 방침이다.

(www.toseishimpo.co.jp/news/bn01/bn010921.html)

유치원·보육원의 통합 및 일원화 추진 (일본 : 이누야마市)

일본 아이치(愛知)현 이누야마(犬山)시는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 일원화할 계획이다. 市는 보육원을 오전반과 종일반으로 나누고, 오전반에는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유치원 아이를, 종일반에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맡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市에 따르면, 오전반과 종일반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오전반 아이가 오후 2시경에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종일반 아이는 자유롭게 놀거나 낮잠을 자도록 한다.

또한 비용은 오전반의 경우 유치원과 같은 금액을, 종일반은 보육원과 같이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보육원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시간대에 가정 양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1일 최저 8시간은 보육하도록 정해져 있다. 반면,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상 ‘보호자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필요로 할 때 관련교육을 수행하는 곳’으로, 보통 4시간 정도를 교육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9. 28)